

연구노트

- 맞벌이 가구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돌봄네트워크모델 개발 -초등자녀를 중심으로
김영란,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정해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 분석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맞벌이 가구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돌봄네트워크모델 개발 -초등자녀를 중심으로

김영란,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제기

자녀 돌봄지원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이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는 여전히 자녀돌봄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영유아기 아동에 정책이 집중되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워킹맘들은 임출산 시기를 포함해서 가장 힘든 시기로 자녀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꼽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맞벌이를 하는 부모와 자녀는 하루 중 일정시간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 돌봄자 부재 상황이 발생한다.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핵심적인 변화는 돌봄자 부재로 인해 등교이전과 하교 이후 방과 후 시간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자의 부재’라는 차원에서, 맞벌이가 아니었다면, 맞벌이가구의 초등자녀를 위해 누군가 역할을 해준다면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 이들이 원하는 것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고, 맞벌이가구 초등학생 자녀의 근접거리에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체계의 빈틈을 메워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로서의 지역사회형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 현황 파악, 초등학생 자녀돌봄지원제도 및 서비스 현황 파악, 맞벌이가구 초등학생 돌봄실태관련 조사 원자료 분석 등을 통해 돌봄 공급과 수요에 대해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여성에 대한 집단면접조사를 통한 대안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기초하여 다음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2. 연구결과 : 초등자녀를 위한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제안

1) 목적과 기본 개념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트워크는 맞벌이 가구 초등 저학년 자녀가 보호자 없이 홀로 있게 되는 시간에, 보호자가 있다면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보호자를 대리하여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자를 대리하여 자녀를 돌본다는 점에서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본 모델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한다는 점, 돌봄제공 기관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 돌봄을 제공받는 자녀와 부모의 연대를 지향함으로써 지역기반 네트워크에 기초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모델의 주요 구성 : 돌봄서비스와 돌봄네트워크

본 모델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기본 돌봄과 방과 후 활동으로 구성된다. 기본 돌봄의 범주에는 직접적인 돌봄, 이동시 돌봄과 안전보호, 급식과 간식 등 식사 및 영양관련 돌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방과 후 활동은 운동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초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과 활동은 1인의 돌봄자가 모든 돌봄과 활동을 책임지는 방식의 일대일 서비스로는 충족이 불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맞벌이 아동 3명을 1명의 직접돌봄자(본 모델에서 가칭 “케어맘”으로 명명하며 이하 케어맘으로 지칭함)가 담당하도록 하는데 이를 돌봄모둠으로 부르기로 한다. 하나의 돌봄모듬을 담당할 1명의 케어맘은 아동의 일차적 보호자 역할을 하며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부모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동시 돌봄 및 안전도우미(본 모델에서 이들을 “이동지원도우미”로 명명하며 이하 “이동지원도우미”로 지칭함)는 아동의 이동을 책임지며, 근거리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다수의 돌봄모듬에 속한 아동을 기본그룹으로 하여 유사한 이동 동선과 이동 시간별로 재구성하여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아동의 방과 후 활동은 운동, 독서,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주당 일정횟수 제공프로그램, 월단위 제공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인접지역 돌봄모듬이 그룹을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또 운동, 독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관련 자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접지역 돌봄모듬 5그룹이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지역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는 체육 강사에게 농구수업을 주당 1회 받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 도서관에서 모듬돌봄그룹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하도록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에 서비스 제공 체계가 다층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돌봄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만 실현 가능하다. 개별 돌봄모듬이 지역사회 자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네트워크가 구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아동3명과 1명의 케어맘간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운영기관이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것으로 지금의 아이돌보미 연계사업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방식의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의 돌봄모듬간 연계 및 협력네트워크, 직접돌봄자간 네트워크, 직접돌봄자와 이동지원도우미간 네트워크,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 제공 주체인 강사 및 지역사회의 관련기관과 돌봄모듬간 네트워크 체계가 구성되어야함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기관으로, 운영기관은 서비스 전반을 기획 관리하고, 아동과 그 부모, 직접돌봄자, 이동지원도우미, 지역사회 자원기관 등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중요한 부분으로 돌봄모듬에 참여하는 부모의 협력이다. 부모들은 이러한 돌봄서비스네트워크에 아동과 더불어 주요 수요자로서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아동돌봄모듬에 참여한 부모들이 기관이나 시설에 아동을 일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과 후 활동 등에 있어서 공동으로 아동을 양육한다는 개념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아동들이 방과 후에 한명의 케어맘과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아동상호간 친밀도가 모듬 운영과 지속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한 개 모듬의 아동들이 친형제자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는 이러한 공동양육방식에 대해 찬성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 아동의 부모들도 모둠의 일원으로서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그림 1〉 돌봄모듬, 지역자원기관 간 네트워크 설계안

3) 모델(안) 적용 가상시나리오

아래 〈그림2〉는 모델(안) 적용 가상 시나리오, 수빈이 하루일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전 7시 부모의 출근이후 퇴근시간까지 돌봄자가 부재한 시간 동안 설계된 모델(안)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와 체계를 살펴 보면 다음〈그림2〉와 같이 구성된다. 지역사회형 돌봄서비스네트워크에서 수빈이가 속한 돌봄모듬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는 크게 케어맘과 지역자원기관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것, 2종으로 구분된다. 케어맘은 하교 후 숙제 점검, 급식지도, 간식지도, 수빈이 엄마와의 상호협의 등의 서비스를 하며, 등하교이동보호, 급식, 모듬이 함께 하는 운동, 도서관활동 등은 지역자원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2〉 케어맘과 함께하는 수빈이의 하루일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정 해 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 젠더관점에서 바라보기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롯하여, 가출 등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Wee Project(교육과학기술부), CYS-NET(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 부적응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Wee 클래스, Wee 센터 등 이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내 상담을 활성화하는 한편, 잠재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ADHD 선별검사 등 전문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1. 2, 한국청소년상담원 내부자료). 이는 학업중단, 가출, 시설보호, 다문화 등 성인기로의 자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소년이 매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¹⁾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청소년들은 심각한 심리,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자립역량 부족 등으로 자립 이행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의 복지수요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 취약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역량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이처럼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 또는 취약 청소년집단의 주요 정책대상의 하나로, 이들의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과 남성이 겪고 있는 위기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한 성 중립적(gender-neutral)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해숙 외, 2010). Carol Gilligan이 청소년기 여성의 발달과정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이래,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급격한 신체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여성 또는

1) 자립지원 필요 청소년(2009) : 전체 118,290명, 학업중단 71,769명, 가출 15,118명, 다문화 14,216명, 시설보호 4,767명, 가정위탁 2,947명, 보호관찰 8,840명, 북한이탈 633명(2011. 2, 한국청소년상담원)

남성으로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투사하며, 그 결과 여성청소년은 남성청소년보다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우울증과 식사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에 많이 노출되며, 자아존중감 등 정서적, 학업적 위기에 처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Rosemary C. Salomone, 2003; Sadker, Myra and Sadker, David, 1994; AAUW, 1991).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이 생물학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별 특징적(gender specific) 개입이 요구된다. 초기 청소년기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며 사춘기에 일어나는 변화를 싫어하는데,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울증의 발생률이 증가하며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생비율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nkin Abramson, Moffitt, Silva, McGee & Angell, 1998, C. W. LeCroy, 2006 재인용).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9,754명을 대상으로 한 위기상황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위기요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강석영 외, 2009). 여성청소년은 심리적, 개인적, 지역사회 위기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남성청소년은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명호 등(2009)에 의한 위기학생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위험행동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한 여성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정책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사회문화적, 생태학적 환경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소비문화와 향락문화가 만연한 우리사회에서 십대 여성청소년의 성이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되는(김은실 외, 1999) 현실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생태학적 환경이 남성청소년과는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위기와 생활세계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은 총 41명으로, 이들의 학업중단 시점은 중학교 3년 동안 5-7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18명)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발생한 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학년별 학업중단 분포와 동일한 양상이다. 가족, 학교, 또래집단은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 세 가지 환경들도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밀접히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업중단이 개인과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복합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 부모가 없는 가족 등 가족의 구조가 해체 및 재구성된 사례가 전체의 약 61%로 그렇지 않은 사례에 비해 더 많았으며, 이들 가족은 후자보다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토대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양육자/보호자에 의한 가정폭력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일상화되어 있으며,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할 어머니’의 부재는 여성청소년에게 ‘작은 엄마’라는 역할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교적 빈곤하고 가부장적 가치가 강한 가족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문화자본과 경제적 토대가 약한 계급일수록 여성청소년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아내나 어머니의 연장선상에 놓인 여성’(변혜정, 2006)으로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가정폭력과 과중한 역할부담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은 결국 생존을 위한 가출을 선택하게 되며, 이후 반복되는 가출은 결석일수 및 학업결손 증가, 일탈에 대한 낙인으로 연결됨으로써 학업중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버린다.

대부분의 여성청소년들은 힘든 상황을 일단 피하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내린 결정이라 학업중단 이후에 대한 계획은 거의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적 자본이 결핍된 계층의 여성청소년일수록 자신들과 똑같이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그만둘 위기에 있는 또래들과 어울려 계획 없이 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출과 일탈행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나 장기화되는 가출은 생계유지 및 유희비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비행행위로 연결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몸에 배인 거리생활의 자유로움은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출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든다. 가족의 지원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노력해 봐야 별다른 미래를 보장받지 못 할 것이라는 좌절감 또한 계속적인 가출과 일탈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고졸학력조차 갖추지 못한 자신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학업중단 이후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이들의 잠재된 욕구를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겪은 성차별적 경험은 아르바이트 구직과정 및 근로환경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 자체가 한정적인 상황이다. 여성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주로 식당, 카페, 마트, PC방, 옷가게 등 서비스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데, ‘위험도가 높고 육체노동을 많이 쓰는’ 또래남성의 일거리보다 훨씬 종류가 작고, 임금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즉 성별화된 직종과 그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생계를 책임지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성산업 내로 들어가도록 만든다.

연소자 고용이 금지된 술집이나 성매매 관련업종을 택하게 되면서 여성청소년의 몸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성산업에서 일했다고 답한 대부분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조건만남과 같은 개인형 성매매, 키스방, 노래방도우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스방이나 노래방도우미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틈나는 대로 돈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고소득 아르바이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게다가 면접과정에서 드러난 이야기 속에는 일의 특성상 언제든지 성매매 상황으로 바뀔 수 있으며, 감금, 협박, 폭력, 성폭력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빛과 그림자

이런 가운데 여러 계기로 접하게 된 사회적 지원 서비스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과 보살핌에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좋았다’는 고백은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이들이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 있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청소년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유의미한 타자와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관심과 의욕을 갖게 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절실했던 이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주고 함께 경험을 나누며 고민을 들어주는 활동가나 자신과 같은 처지를 극복한 선배경험자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은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위기상황에서 경찰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경직된 규정만을 거론하며 사무적으로 처리하려는 청소년지원기관의 상담원들의 태도는 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청소년지원기관의 열악한 재정과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또 다른 현실이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 없이 ‘꼭바로 살아야 한다.’는 상담만 해주는 상담선생님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상담선생님의 성차별적 발언은 이들을 어이없게 한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의 전문성과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일부 청소년지원시설에서 폭력과 일탈이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 사이에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고 이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여성청소년은 증가하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나 시설은 이용자가 없어 이들을 찾아나서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여성청소년들에게 학업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안학교를 다녀도 검정고시를 따야 학력이 인정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자활지원사업은 미용, 제빵과 같은 성 정형화된 일부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보인다.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 분석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은 전 세계 국가들의 국회 내 성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성 인지적 의회구성을 위한 조직 및 조치(Mechanisms and Measures for Gender Sensitive Parliaments)에 관하여 정당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과 관련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IPU가 조사하고 있는 성 인지적 의회구성과 관련한 조사항목으로는 국회 조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와 국회 성 인지적 의정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여성 의원 비율이 16대 5.9%에서 17대 13.0%, 18대 13.7%(2011년 10월 현재 의원 승계 포함 15.1%)로 증가한 상황에서 16대에서 18대까지 여성 의원 증가에 따른 의사결정과정과 의정활동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회 내 성 주류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상임위 등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변화이다. 16대 5.9%, 17대 13.0%, 18대 13.7%의 여성 의원 증가는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 등 국회 의사결정직에 여성 의원 수의 증가로 나타났다. 실제, 여성 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대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5.9%(각 1명씩), 17대 전반기에 17.6%(3명), 후반기 11.8%(2명) 그리고 18대 전반기에 18.8%(3명)로 다소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원 구성시점을 기준으로 여성 의원들의 간사활동을 살펴보면, 16대에는 6명, 17대에는 7명 그리고 18대 전반기에 5명의 여성 의원이 간사 활동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참여를 성별 분석한 결과, 16대 전반기 5개의 상임위원회에 여성 의원들의 활동이 없다가 여성 의원 수의 증가로 인해 18대 전반기의 원구성에서 여성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든 상임 위원회에 참여해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회의원 여성 의원 수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성 의원의 수적 증가와 함께 여성 의원의 의정활동의 양적 · 질적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법률안 발의 비율이 16대, 17대, 18대 모두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의원이 16대 5.9%에서 13%로 증가한 17대 전반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여성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비율은 여성 의원의 대표율을 넘어서고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7대 전반기가 대표율 대비 가장 높은 발의율을 보여주었고, 이후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6대 전반기의 경우 남녀의원 대표발의 건수는 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건수는 691건(93.1%)으로 남성 의원 비율 94.1%에 비하여 다소 낮으며, 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의 경우 51건(6.9%)으로 여성 의원 비율 5.9%에 비하여 다소 높다. 17대 전반기의 경우 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건수는 2,484건(78.9%)으로 남성 의원 비율 87.0%에 비하여 다소 낮으며, 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의 경우 666건(21.1%)으로 여성 의원 비율 13.0%에 비하여 다소 높다. 18대 전반기의 경우 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건수는 5,050건(83.4%)으로 남성 의원 비율 86.3%에 비하여 다소 낮으며, 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의 경우 1,005건(16.6%)으로 여성 의원 비율 13.7%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16대 대비 17대 국회 여성 의원의 증가율은 7.1%p 인데 법률안 발의 증가율은 14.2%p 증가하여 17대 여성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6대에 비해 17대에 여성 의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여성 의원들이 극소수였던 상황보다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3배 이상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성 의원들은 복지,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최근 들어와 여성 의원의 증가에 따라 재정경제, 교육, 국토해양분야의 각 소관위원회의 주제에 관한 법안발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 또한 여성 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성의 다양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여성 의원들은 남성 의원보다 여성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높은 수준의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관련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과정에서 남녀 의원 간 성 인지적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여성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높은 수준의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처리를 위한 노력을 ‘운동’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여성 의원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일례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면, 16대와 17대에는 남성 의원의 발의는 없었고 여성 의원만이 발의(총 7건)하였다. 반면 18대 전반기에는 여성 의원의 발의가 없었던 반면 남성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으며, 총 6건이나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남성 의원들의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대한 의제 개발이라기보다는, 16대, 17대에 여성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각 세부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할당 비율 역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여성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산정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더불어 여성인적 자원 개발 및 지원과 관련된 육아휴직 문제의 경우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제안된 법안은 대부분 여성 의원들이 발의하였던 것이며, 이 내용들은 한 두 시기 뒤에 남성 의원들에 축소되어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 의원이 여성관련 법안과 관련된 의제를 선점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서 선봉을 서고 있는 것이다.

넷째, ‘여성 의원의 증가는 남성 의원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성 의원의 증가는 남성 의원의 여성정책 의제에 대한 관심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16대 전반기부터 제18대 전반기까지 여성이 발의한 전체 법안 발의 건수 대비 여성관련 법안 발의 건수에 대한 비율은 16대 전반기 25.5%에서 17대 전반기 11.9%, 18대 전반기 6.9%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1인당 평균 여성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여성 의원의 경우 16대 전반기에 0.8건(전체 13건), 17대 전반기 2.0건(전체 79건), 18대 전반기 1.7건(전체 69건)이고, 남성 의원의 경우 16대 전반기에 0.04건(전체 10건), 17대 전반기 0.2건(전체 53건), 18대 전반기 0.4건(전체 111건)으로 남성의원의 1인당 평균 여성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법률안은 16대에 여성 의원이 발의한 25건, 남성 의원이 16건을 발의하였으며, 17대에는 여성 의원이 146건, 남성 의원이 81건을 발의 하였다.

17대 여성 의원의 비율이 13.0%임을 감안하였을 때, 여성 의원들의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건수의 증가율 폭은 남성 의원의 발의건수 증가율보다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8대 전반기로 넘어오면서 역전되는 현상을 보인다. 여성 의원이 70건, 남성 의원이 111건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일면 여성 의원들의 증가가 모든 상임위에 참여하는 등 활동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의제선정의 관심사가 남성의원에게도 영향을 주어 확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남성 의원들은 시대적으로 생활정치 의 확산과 함께 안전과 육아 및 아동에 민감해지면서, 여성인력활용을 증대시켜야 하는 사회 변화를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과제이다. 반면 여성 의원들은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좀 더 새롭고 풍부한 여성 의제 개발에서 역량 부족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 의원 증가 영향으로 남성 의원의 남녀평등의식이 제고되고 성 인지적 관점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여성 의원들의 증가는 국회의 성 인지적 조직문화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성의원들의 증가는 우리나라 국회가 성 인지적 조직문화로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원보다 남성의원들이 국회의 성 인지적 조직문화를 더 높이 평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야간 회의의 시간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 가족친화적인 국회 만들기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규범성 인식 변화도 고무적이었다. 향후 국회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흐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성 인지적 국회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향후과제로는 ① 여성 의원

대표성 제고 및 국회 각종 위원회 여성 의원 안배 고려, ② 경제, 재정, 외교통상 등 비중 있는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여성 의원 우선권 부여, ③ 국회의원 대상 성 인지 의식 강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④ 정당 정책위원회에 여성의제개발 정책자문단 구성을 통한 성 인지적 의정활동 지원, ⑤ 국회의원 여성보좌진의 적극적 활용 권고, 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활동 강화 및 활성화 도모, ⑦ 국회 내에서의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⑧ 여성의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여성네트워크 및 여성정책 공론화 확대, ⑨ 실용주의적 입법 활동의 변화 추구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정책개발 및 홍보 강화 등을 들 수 있다.